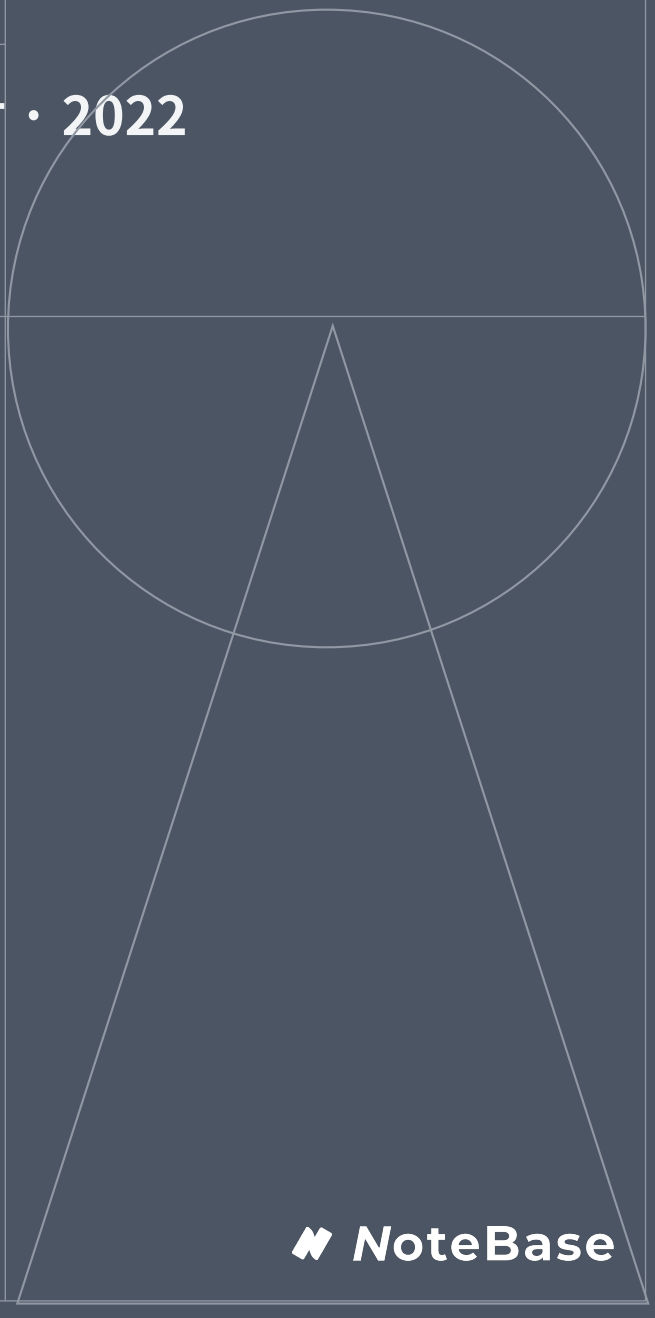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2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2

문 1.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①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②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가 생산된다면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

③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④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자산의 취득 등으로 부담하는 **해체·제거·부지 복구의무의 최초 추정원가**는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된다. 실제 지출이 미래에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부담한 의무에 따른 원가이므로 자산과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새로운 시설의 개설원가는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지출로서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시설을 짓는 건설원가나 설비의 설치원가처럼 자산을 사용 가능한 장소와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드는 원가와 구별해야 한다.

② X: 가동 준비 중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화의 원가는 재고자산의 측정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매각금액을 유형자산 원가에서 차감하거나 그 재화의 원가를 유형자산 원가에 더하지 않는다.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원가 자체는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시험 중 생산된 재화의 판매와 관련된 손익은 별도로 처리한다.

③ X: 유형자산 원가의 인식은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 중단한다. 실제 사용을 시작하거나 완전조업도에 도달할 때까지 원가를 계속 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미 가동 가능한 자산이 아직 사용되지 않거나 완전조업도 미만으로 가동되어 발생하는 원가는 그 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

④ O: 자산을 취득할 때 또는 재고자산 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해체·제거·부지 복구의무를 부담하면, **그 의무에 따른 최초 추정원가**를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당장 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의무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관련 충당부채도 함께 인식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자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복구의무의 원가는 재고자산 원가에 반영한다.

NoteBase

문 2. 다음 (주)한국의 재무자료를 이용한 이익잉여금은?

○ 현금	₩ 2,000	○ 매출채권	₩ 2,500
○ 선수수익	₩ 800	○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 300
○ 재고자산	₩ 3,000	○ 기계장치	₩ 14,000
○ 매입채무	₩ 1,500	○ 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	₩ 5,000
○ 자본금	₩ 4,000	○ 이익잉여금	?

① ₩ 9,900

② ₩ 10,700

③ ₩ 11,000

④ ₩ 16,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에서 차감**하고, 선수수익은 부채에 포함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13,900원 중 자본금 4,000원을 제외하면 **이익잉여금은 9,9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자산총계: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누계액은 각각 매출채권과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을 줄이는 차감계정**이다. 매출채권의 순장부금액은 2,500 − 300 = 2,200원이고, 기계장치의 순장부금액은 14,000 − 5,000 = 9,000원이다. 여기에 현금과 재고자산을 더하면 자산총계는 2,000 + 2,200 + 3,000 + 9,000 = 16,200원이다.

2. 부채총계: 매입채무 1,500원과 선수수익 800원을 합한다. 선수수익은 미리 받은 대가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수익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한다. 부채총계는 1,500 + 800 = 2,300원이다.

3. 자본총계: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이므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남는다. 자본총계는 16,200 − 2,300 = 13,900원이다.

4. 이익잉여금: 주어진 자료에서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자본총계에서 자본금을 차감하면 이익잉여금은 13,900 − 4,000 = 9,900원이며,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한 (주)한국은 품질보증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에어컨을 판매하고 있다. 20×1년 에어컨 판매 수량은 500대이고, 대당 판매가격은 ₩1,000이며, 동종업계의 과거 경험에 따르면 제품보증비용은 대당 ₩50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년 중 실제 제품보증비 지출이 ₩10,000이면,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제품보증충당부채는?

① ₩5,000

② ₩15,000

③ ₩25,000

④ ₩4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판매한 에어컨의 예상 보증비용 25,000원에서 **이미 지출한 보증비 10,000원을 차감**한다. 기말 제품보증충당부채 15,000원은 앞으로 보증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계산 과정

1. 예상 보증비용 인식: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에어컨을 판매하면서 부담한 보증의무에 대해, 예상 보증비용을 판매한 연도에 비용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대당 예상 보증비용이 주어졌으므로 **판매수량에 대당 예상 보증비용을 곱한다**. 500대 × 50원 = 25,000원으로, 이는 20×1년 판매분의 전체 예상 보증비용이다. 대당 판매가격 1,000원은 이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2. 실제 지출 반영: 20×1년 중 지출한 제품보증비 10,000원은 이미 인식한 보증의무를 이행한 금액이므로 **충당부채를 감소**시킨다. 이를 예상 보증비용에 다시 더하지 않는다.

3. 기말 잔액 계산: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으므로 기초 제품보증충당부채는 0원이다. 기말 잔액은 기초 잔액에 당기 설정액을 더하고 실제 지출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0원 + 25,000원 − 10,000원 = 15,000원
따라서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제품보증충당부채는 15,000원이며,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주)한국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12월 31일 화재로 인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재고자산 일부가 소실되었다. (주)한국의 과거 매출총이익률은 25%이고, 20×1년 중 재고자산 거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기말재고자산 추정액은?

◯ 총매출액 ₩215,000 ◯ 총매입액 ₩140,000
◯ 매입환출 ₩5,000 ◯ 기초재고자산 ₩18,000
◯ 매출에누리 ₩20,000 ◯ 매입할인 ₩13,000
◯ 매입운임 ₩10,000 ◯ 매출환입 ₩15,000

① ₩5,000
② ₩8,000
③ ₩15,000
④ ₩2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매출총이익률이 순매출액의 25%이므로 **추정 매출원가는 순매출액의 75%**이다. 판매가능상품원가 150,000원에서 추정 매출원가 135,000원을 빼면 기말재고자산 추정액은 15,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추정 방법: 화재로 재고자산 일부가 소실되어 실사만으로는 화재 직전의 재고액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거 매출총이익률 25%를 적용하는 매출총이익법으로 추정한다. 매출총이익률은 순매출액 중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매출원가율은 100% − 25% = 75%**이다.

순매출액: 총매출액에서 반품으로 취소된 매출환입과 판매대금의 감액인 매출에누리를 뺀다. 순매출액 = 215,000 − 15,000 − 20,000 = 180,000원이다.

판매가능상품원가: 매입환출과 매입할인은 매입원가를 줄이고, **매입운임은 재고 취득에 필요한 원가이므로 더한다**. 순매입액 = 140,000 − 5,000 − 13,000 + 10,000 = 132,000원이다. 여기에 기초재고자산을 더하면 판매가능상품원가 = 18,000 + 132,000 = 150,000원이다. 이는 당기에 판매하거나 기말에 보유할 수 있었던 상품의 총원가이다.

추정 매출원가: 순매출액에 매출원가율 75%를 적용하면 180,000 × 75% = 135,000원이다. 이는 당기에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추정한 금액이다.

기말재고자산 추정액: 판매가능상품원가에서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빼면 기말에 남아 있어야 할 재고의 원가가 된다. 기말재고자산 추정액 = 150,000 − 135,000 = 15,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이 금액은 **화재로 소실된 재고와 소실되지 않은 재고를 합한 추정액**이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노무원가 시간당 표준임률은?

◯ 표준직접노동시간 1,000시간
◯ 실제직접노동시간 960시간
◯ 실제발생 직접노무원가 ₩364,800
◯ 능률차이(유리한 차이) ₩14,800
◯ 임률차이(불리한 차이) ₩9,600

① ₩240
② ₩350
③ ₩370
④ ₩38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능률차이는 실제시간과 표준시간의 차이를 **표준임률로 평가한 금액**이다. 표준보다 40시간 적게 투입하여 14,800원의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으므로, 시간당 표준임률은 370원이다.

계산 과정

능률차이는 작업시간을 표준보다 많이 또는 적게 사용한 효과를 **표준임률로 평가**한다. 표준직접노동시간은 1,000시간이고 실제직접노동시간은 960시간이므로, 1,000 − 960 = 40시간을 절약했다. 이 절약으로 발생한 원가 감소액이 유리한 능률차이 14,800원이다.

시간당 표준임률을 r이라 하면, 절약한 40시간에 표준임률을 곱한 금액이 14,800원이다. 따라서 $r = \frac{14,800}{40} = 370$원/시간이다.

주어진 임률차이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임률차이는 **실제 투입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액과 표준임률 적용액을 비교한다. 실제 960시간에 표준임률을 적용한 금액은 960 × 370 = 355,200원이다. 실제발생 직접노무원가가 364,800원이므로, 364,800 − 355,200 = 9,600원만큼 더 지급한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여 제시된 자료와 일치한다.

시간당 표준임률 370원은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문 6.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상품매매와 관련한 자료이다.
(주)한국이 매출원가의 50%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상품을 판매할 경우, 20×1년 상품매입을 위한 현금 유출액은?

◯ 매출액 ₩ 7,500 ◯ 기초상품재고액 ₩ 2,000
◯ 기초매입채무 ₩ 500 ◯ 기말상품재고액 ₩ 1,000
◯ 기말매입채무 ₩ 3,000

① ₩ 1,500
② ₩ 2,500
③ ₩ 3,000
④ ₩ 5,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매출액은 **매출원가의 150%**이므로 매출원가는 5,000원이고, 재고 감소분을 반영한 당기매입액은 4,000원이다. 여기에 기초매입채무를 더하고 기말매입채무를 빼면 상품매입을 위한 현금 유출액은 1,500원이다.

계산 과정

1. 매출원가 계산: 이익을 가산하는 기준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원가**이다. 매출원가에 그 금액의 50%를 더해 판매하므로 매출액 7,500원은 매출원가의 150%이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frac{7,500}{1.5} = 5,000$원이다.

2. 당기매입액 계산: 판매된 상품의 원가인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에 당기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재고액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당기매입액은 5,000 − 2,000 + 1,000 = 4,000원이다. 재고가 1,000원 감소했으므로 판매된 상품의 원가 중 1,000원은 **기초재고에서 충당**한 것이며, 당기에 매입한 금액은 매출원가보다 그만큼 적다.

3. 현금 유출액 계산: 매입채무는 상품을 매입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다. 당기매입액에 전기에서 넘어온 기초매입채무를 더하면 지급할 상품대금 총액이 되고, 여기서 기말에도 미지급 상태인 매입채무를 빼면 실제 지급액이 된다. 따라서 현금 유출액은 4,000 + 500 − 3,000 = 1,500원이다. 매입채무가 2,500원 증가했으므로 **당기매입액보다 현금 지급액이 2,500원 적다**.

20×1년 상품매입을 위한 현금 유출액은 1,5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은 제품 A와 B를 생산하여 제품 A 3단위와 제품 B 2단위를 하나의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다. 손익분기점에서 제품 A와 B의 판매량은?

○ 제품별 단위당 판매가격 및 변동원가

구분 \ 제품	A	B
단위당 판매가격	₩500	₩800
단위당 변동원가	₩300	₩700

○ 고정제조간접원가 ₩600,000

○ 고정판매비와관리비 ₩360,000

① 제품 A: 2,400단위, 제품 B: 2,400단위

② 제품 A: 2,400단위, 제품 B: 3,600단위

③ 제품 A: 3,600단위, 제품 B: 2,400단위

④ 제품 A: 3,600단위, 제품 B: 3,600단위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A 3단위와 B 2단위로 구성된 **한 묶음의 공헌이익은 800원**이며, 이 금액으로 총고정원가 960,000원을 충당해야 한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200묶음이므로 제품 A는 3,600단위, 제품 B는 2,400단위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제품별 단위당 공헌이익: 공헌이익은 판매가격에서 변동원가를 뺀 금액으로, 고정원가를 충당하고 남으면 이익이 된다. 표의 단위당 판매가격과 변동원가를 적용하면 A는 500 − 300 = 200원, B는 800 − 700 = 100원이다.

2. 묶음당 공헌이익: **A 3단위와 B 2단위를 한 묶음**으로 판매하므로 판매배합을 유지한 묶음 단위로 계산한다. 한 묶음의 공헌이익은 200 × 3 + 100 × 2 = 800원이다. 이는 한 묶음을 판매할 때 고정원가 충당에 기여하는 금액이다.

3. 총고정원가: 손익분기점은 영업이익이 0이 되는 판매량이므로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고정판매비와관리비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총고정원가는 600,000 + 360,000 = 960,000원이다.

4. 손익분기점 묶음 수: 총공헌이익이 총고정원가와 같아져야 하므로, 총고정원가를 묶음당 공헌이익으로 나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frac{960{,}000}{800} = 1{,}200$묶음이다.

5. 제품별 판매량: 1,200묶음에는 제품 A가 1,200 × 3 = 3,600단위, 제품 B가 1,200 × 2 = 2,400단위 포함된다. 따라서 제품 A 3,600단위, 제품 B 2,400단위인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③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기능별 분류보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성격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④ 재분류조정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으며, 재분류조정을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재분류조정을 반영한 후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을 표시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설명은 **기능별 분류**의 특성이다. 기능별 분류는 성격별 분류보다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기능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권리**를 기준으로 한다. 약정 위반으로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 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상환을 적어도 12개월 연기할 권리가 없으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보고기간말의 분류는 바뀌지 않는다.

② O: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재분류조정에 관련된 법인세도 공시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세금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X: 선지의 '성격별 분류'를 '기능별 분류'로 고쳐야 한다. 성격별 분류는 급여·감가상각비처럼 비용이 발생한 성격에 따라 묶으며, 이를 기업 내 기능별로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 기능별 분류는 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처럼 비용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나눈다. 기능별 분류는 성격별 분류보다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 등을 **각 기능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배분 기준의 선택과 상당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④ O: 재분류조정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때 포괄손익에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재분류조정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다.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관련 재분류조정을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기계장치를 ₩1,200,000에 취득(정액법,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 원가모형 적용, 월할 상각)하였다. (주)한국은 기계장치에 대해 20×1년 말 손상차손이 발생하였고, 20×2년 말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20×1년 말 ₩600,000이고, 20×2년 말 ₩700,000이면, 20×2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은?

① ₩240,000

② ₩340,000

③ ₩400,000

④ ₩60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손상차손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2년 말 그 한도는 600,000원이고 환입 전 장부금액은 360,000원이므로, 환입액은 24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20×1년 말 손상차손: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1,200,000}{3} = 400,000$원이다. 7월 1일 취득하여 6개월간 사용했으므로 월할 상각액은 $400,000 \times \frac{6}{12} = 200,000$원이다. 손상 전 장부금액은 1,200,000 − 200,000 = 1,000,000원이며, 회수가능액 600,000원까지 줄여야 하므로 손상차손 400,000원을 인식한다.

2. 20×2년 말 환입 전 장부금액: 손상 후에는 **감액된 장부금액을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20×1년 말 남은 내용연수는 36 − 6 = 30개월이고 잔존가치는 0원이므로, 20×2년 감가상각비는 $600,000 \times \frac{12}{30} = 240,000$원이다. 따라서 환입 전 장부금액은 600,000 − 240,000 = 360,000원이다.

3. 환입 후 장부금액의 한도: 원가모형에서 손상차손을 환입하더라도 **과거 손상이 없었다면 남아 있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손상이 없었다면 20×1년 말 장부금액 1,000,000원에서 20×2년 감가상각비 400,000원을 차감하므로, 20×2년 말 장부금액은 600,000원이다. 회수가능액이 700,000원이더라도 환입 후 장부금액은 600,000원까지만 높일 수 있다.

4. 손상차손환입액: 환입 가능한 장부금액 600,000원에서 환입 전 장부금액 360,000원을 빼면 600,000 − 360,000 = 240,000원이다. 이는 ①의 240,000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초순자산 및 그 밖의 대응금액을 회계추정의 변경 이전 처음부터 적용된 것으로 조정한다.

③ 오류의 수정은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수정하는 것이다.

④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정답 2번

①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을 변경하면 **변경내용·변경사유·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이하 "회계변경"이라 한다)은 그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2021.1.7>
3.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NoteBase

②

회계추정 변경의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처리한다. 직전 회계연도의 기초순자산과 대응금액을 소급 조정하는 것은 회계정책 변경의 원칙적 처리방법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이하 "회계변경"이라 한다)은 그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2021.1.7>
1.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초순자산 및 그 밖의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2.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③

오류수정은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회계기준 적용·추정·계정분류·계산상의 오류와 사실의 누락·오용 등을 바로잡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② 오류의 수정은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2021.1.7>
1. 중대한 오류: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한다.
2. 제1호 외의 오류: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NoteBase

④

중대한 오류를 수정하면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의 수정금액, 비교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을 주석에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③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제2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2.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NoteBase

문 11. 다음 (주)한국의 20×1년 보통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 기초유통보통주식수 6,000주
◯ 7월 1일 보통주 무상증자 500주
◯ 9월 1일 보통주 공정가치 발행 유상증자 900주

① 6,550주
② 6,800주
③ 6,900주
④ 7,400주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무상증자 500주는 **기초부터 존재한 것으로 반영**하고, 공정가치로 유상증자한 900주는 9월부터 4개월분만 반영한다. 이에 따른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6,800주이다.

계산 과정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주식수를 해당 기간에 유통된 기간의 비율로 가중하여 계산한 수량이다. 월할 계산이므로 유통 개월 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가중치를 구한다.

기초 주식수와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새로운 자원의 유입 없이 주식수만 증가하므로, 증가한 500주도 **기초부터 유통된 것으로 소급 반영**한다. 따라서 기초 6,000주에 500주를 더한 6,500주를 연중 12개월 전체에 반영한다.

공정가치 발행 유상증자: 자원의 유입을 수반하므로 900주는 **발행일인 9월 1일부터** 반영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므로 가중평균에 더하는 수량은 900 × (4)/(12) = 300주이다. 이는 유상증자로 늘어난 900주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수량이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6,500 + 300 = 6,800주이며, ②의 6,800주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6월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이다. 20×1년 6월의 매출원가는?

○ 재고자산 현황

구분 / 일자	직접재료	재공품	제품
6월 1일	₩3,000	₩6,000	₩9,000
6월 30일	₩2,000	₩2,000	₩8,000

○ 6월의 직접재료 매입액은 ₩35,000이다.

○ 6월 초 직접노무원가에 대한 미지급임금은 ₩5,000, 6월에 현금 지급한 임금은 ₩25,000, 6월 말 미지급임금은 ₩10,000이다.

○ 6월에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22,000이다.

① ₩74,000

② ₩88,000

③ ₩92,000

④ ₩93,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직접노무원가는 현금 지급액에서 기초 미지급임금을 빼고 기말 미지급임금을 더한 **30,000원**이다. 이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재공품과 제품의 **기초 재고는 더하고 기말 재고는 빼면** 6월 매출원가는 93,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직접재료원가: 6월에 사용할 수 있었던 직접재료는 기초 재고 3,000원과 매입액 35,000원의 합계이다. 여기서 기말에 남은 2,000원을 빼면 **생산에 투입한 직접재료**의 원가가 된다.
직접재료원가 = 3,000 + 35,000 − 2,000 = 36,000원

2. 직접노무원가: 6월 현금 지급액 25,000원에는 전월에 발생한 기초 미지급임금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뺀다. 반대로 6월에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기말 미지급임금 10,000원은 더한다. 이렇게 **지급 시점이 아니라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6월의 직접노무원가를 구한다.
직접노무원가 = 25,000 − 5,000 + 10,000 = 30,000원

3. 당월총제조원가: 6월에 생산을 위해 새로 투입한 원가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이다. 주어진 제조간접원가 22,000원을 더한다.
당월총제조원가 = 36,000 + 30,000 + 22,000 = 88,000원

4. 당월제품제조원가: 기초 재공품 6,000원은 전월부터 생산 중이던 원가이므로 더하고, 기말 재공품 2,000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원가이므로 뺀다. 그 결과는 **6월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원가**이다.
당월제품제조원가 = 6,000 + 88,000 − 2,000 = 92,000원

5. 매출원가: 기초 제품 9,000원에 6월에 완성한 제품의 원가 92,000원을 더하면 판매할 수 있었던 제품의 원가가 된다. 여기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기말 제품** 8,000원을 빼면 판매한 제품의 원가를 구할 수 있다.
매출원가 = 9,000 + 92,000 − 8,000 = 93,000원

따라서 6월 매출원가 93,000원은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은 분배를 선언하고 소유주에게 관련 자산을 분배할 의무를 부담할 때, 미지급배당을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② 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비현금자산을 분배해야하는 부채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③ 각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기업은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을 검토하고 조정하며, 이 경우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 변동은 분배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자본에서 인식한다.

④ 기업이 미지급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미지급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한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분배를 선언하여 소유주에게 자산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면 미지급배당을 부채로 인식한다. 구체적으로 배당이 적절하게 승인되어 **기업이 더 이상 재량으로 철회할 수 없게 된 때**에 인식하며, 실제 자산을 넘겨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② O: 비현금자산을 배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분배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따라서 기업의 장부에 기록된 자산 금액을 그대로 미지급배당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분배할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급 의무의 금액을 정한다.

③ O: 각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을 검토하고, 분배할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이때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 변동은 소유주에게 지급할 배당액의 변경이므로 **분배금액의 조정으로 자본에 인식**한다.

④ X: 결제할 때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산을 넘겨주면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할 때 생기는 차이이므로, ③의 배당부채 측정액 조정과 구별한다. 예를 들어 장부금액 70만 원인 자산을 넘겨주어 미지급배당 100만 원을 결제하면, 부채 100만 원과 자산 70만 원을 제거하고 차액 30만 원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NoteBase

문 14. (주)한국은 당기에 제1공정에서 결합원가 ₩120,000을 투입하여 결합제품 A, B, C를 생산하였다. A와 B는 분리점에서 각각 ₩100,000과 ₩80,000에 판매 가능하며, C는 분리점에서 판매 불가능하므로 추가가공원가 ₩60,000을 투입하여 ₩120,000에 판매한다. (주)한국이 균등이익률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할 경우, C에 배부될 결합원가는?

① ₩12,000

② ₩48,000

③ ₩60,000

④ ₩72,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균등이익률법은 모든 제품의 **매출액 대비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맞추는 방법이다. 전체 매출총이익률이 40%이므로 C의 총원가는 매출액의 60%인 72,000원이며, 여기서 추가가공원가 60,000원을 빼면 C에 배부될 결합원가는 12,000원이다.

계산 과정

균등이익률법은 각 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이 전체 매출총이익률과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때 제품별 총원가는 **배부된 결합원가와 추가가공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1. 전체 매출총이익률: A와 B는 분리점 판매액을, C는 추가가공 후 판매액을 사용한다. 전체 매출액은 100,000 + 80,000 + 120,000 = 300,000원이다. 전체 원가는 결합원가와 C의 추가가공원가를 합한 120,000 + 60,000 = 180,000원이므로, 전체 매출총이익은 300,000 − 180,000 = 120,000원이다. 따라서 전체 매출총이익률은 $\frac{120,000}{300,000} \times 100 = 40\%$이다.

2. C의 총원가: C에도 매출총이익률 40%를 적용하므로, 매출액 중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100% − 40% = 60%이다. C의 총원가는 $120,000 \times 60\% = 72,000$원이다. 이 금액에는 **추가가공원가도 포함**되어 있다.

3. C에 배부될 결합원가: C의 총원가에서 C에 직접 발생한 추가가공원가를 차감한다. C에 배부될 결합원가는 72,000 − 60,000 = 12,0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한국의 자본을 재무자본유지개념(불변구매력단위)과 실물자본유지개념으로 측정할 때, 20×1년도에 인식할 이익은? (단, 20×1년 중 다른 자본거래는 없다)

구분	20×1년 초	20×1년 말
자산 총계	₩100,000	₩300,000
부채 총계	₩50,000	₩150,000
일반물가지수	100	150
재고자산 단위당 구입가격	₩1,000	₩2,000

① 재무자본유지개념(불변구매력단위): ₩75,000, 실물자본유지개념: ₩50,000

② 재무자본유지개념(불변구매력단위): ₩75,000, 실물자본유지개념: ₩100,000

③ 재무자본유지개념(불변구매력단위): ₩100,000, 실물자본유지개념: ₩50,000

④ 재무자본유지개념(불변구매력단위): ₩100,000, 실물자본유지개념: ₩10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재무자본유지개념(불변구매력단위)은 **일반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기초 자본 75,000원을 유지하므로 이익은 75,000원이다. 실물자본유지개념은 **재고자산 구입가격 상승률**을 반영한 기초 자본 100,000원을 유지하므로 이익은 5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기초·기말 자본: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다. 기초 자본은 100,000 − 50,000 = 50,000원이고, 기말 자본은 300,000 − 150,000 = 150,000원이다. 다른 자본거래가 없으므로 기말 자본에서 각 개념에 따라 유지해야 할 기초 자본을 차감하여 이익을 구한다.

재무자본유지개념(불변구매력단위): 기초 자본의 **일반적인 구매력**을 유지한 뒤 남는 금액을 이익으로 본다. 일반물가지수가 100에서 150으로 올랐으므로 기말 구매력으로 환산한 기초 자본은 $50{,}000 \times \frac{150}{100} = 75{,}000$원이다. 이 중 기초 자본을 초과하는 25,000원은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를 보전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이익은 150,000 − 75,000 = 75,000원이다.

실물자본유지개념: 기초와 **동일한 실물 생산능력**을 유지한 뒤 남는 금액을 이익으로 본다. 이 문제에서는 재고자산 단위당 구입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 비율을 적용한다. 유지해야 할 기초 자본은 $50{,}000 \times \frac{2{,}000}{1{,}000} = 100{,}000$원이다. 기초 자본보다 늘어난 50,000원은 같은 실물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므로 이익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익은 150,000 − 100,000 = 50,000원이다.

재무자본유지개념(불변구매력단위)의 이익 75,000원과 실물자본유지개념의 이익 50,000원을 함께 제시한 것은 ①이다.

NoteBase

문 16.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할 때에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생물자산을 최초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이후 그러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더라도 최초 적용한 측정방법을 변경하지 않는다.

④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최초 적용한 측정방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리다. 처음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를 기초로 측정했더라도, 이후 측정이 가능해지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변경**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수확물은 **수확시점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를 항상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므로 원가 측정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금액은 이후 재고자산 기준서를 적용할 때의 원가가 된다.

② O: 생물자산은 원칙적으로 최초 인식시점부터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므로, **처분부대원가의 차감으로 최초 인식손실**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정가치가 100원인 생물자산을 100원에 취득하고 추정 처분부대원가가 5원이면, 생물자산을 95원으로 인식하면서 차액 5원을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③ X: 생물자산의 원가 측정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시장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고 대체적인 공정가치 측정치도 명백히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한다. 이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최초 적용한 측정방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

④ O: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에 관한 무조건부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른 조건이 없으므로 별도의 조건 이행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실제 현금을 받는 시점까지 인식을 미루는 것도 아니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은 20×1년 초에 A사 유통보통주식 1,000주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당 ₩2,000에 취득함으로써 A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A사는 20×1년 9월 말에 1주당 ₩50의 현금배당을 선언하고 지급하였으며, 20×1년 말에 당기순손실 ₩200,000을 보고하였다. (주)한국이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관계기업투자주식은?

① ₩525,000

② ₩540,000

③ ₩585,000

④ ₩60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지분법에서는 **순손실 중 지분 해당액과 수령한 현금배당액을 모두 차감**하여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구한다. 취득원가 600,000원에서 순손실 지분액 60,000원과 배당금 15,000원을 차감하면 기말 장부금액은 525,000원이다.

계산 과정

(주)한국은 A사 지분 30%를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관계기업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한다. 지분법은 투자주식을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 뒤, 관계기업의 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 해당액을 장부금액에 반영하고 수령한 배당금은 차감하는 방법이다.

취득원가: 취득한 주식 수는 1,000주 × 30% = 300주이다. 따라서 20×1년 초 취득원가는 300주 × 2,000원 = 600,000원이다.

현금배당: 9월 말 수령한 배당금은 300주 × 50원 = 15,000원이다. 지분법에서는 배당을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금의 회수**로 보아 투자주식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

순손실 반영: A사의 당기순손실 200,000원 중 (주)한국의 지분 해당액은 200,000원 × 30% = 60,000원이다. 연초부터 보유하였으므로 연간 순손실에 지분율을 적용하며, 이 금액만큼 지분법손실을 인식하고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줄인다.

기말 장부금액: 600,000원 − 15,000원 − 60,000원 = 525,000원이다. 따라서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관계기업투자주식은 525,0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국가회계예규」의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서 재무제표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국채(공채)를 동일 중앙관서 내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취득하는 경우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투자증권(국채(공채))을 국채(공채)의 차감계정인 자기국채(공채)로 대체한다.

②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재정운영표에 수익·비용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하여 상호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제거하지 않는다.

③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중앙관서 간 내부거래를 통한 일반유형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전환 등의 거래는 상호 채권·채무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내부거래 제거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④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에 표시되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는 국가 재정운영표 작성 시에는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정답 1번

①

동일 중앙관서 내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한 국채·공채 투자증권은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자기국채·공채로 대체하여 발행한 국채·공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예규 제22호) 문단 8
8. (자기국채(공채) 대체)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국채(공채)를 동일 중앙관서 내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취득하는 경우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투자증권은 자기국채(공채)로 대체함으로써 국채(공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시킨다.

②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내부거래로 상호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제거**한다.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예규 제22호) 문단 9
9. (수익 · 비용의 내부거래 제거)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수익 · 비용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하여 상호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제거한다.

NoteBase

③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앙관서 간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처분·관리전환 등 **상호 채권·채무를 보유하지 않는 거래는 내부거래 제거대상에서 제외**한다.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예규 제22호) 문단 12(2)
12. (내부거래의 제거)
(2) 상호간 채권 · 채무를 보유하지 않는 유 · 무형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전환 등의 거래는 내부거래 제거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의 재원 조달·이전거래는 국가의 분야별 재정운영표에서 **'재정운영순원가'가 아니라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한다.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예규 제22호) 문단 15(2)
15.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조정)
(2) 분야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한다.

NoteBase

문 19. (주)한국은 보조부문 X, Y와 제조부문 P1, P2를 운영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조부문 X는 기계시간, Y는 전력소비량에 비례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각각 배부한다. (주)한국의 각 부문 원가와 용역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상호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경우, 제조부문 P1, P2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는?

구분	보조부문		제조부문		합계
	X	Y	P1	P2	
부문원가	₩100,000	₩120,000	₩100,000	₩200,000	₩520,000
기계시간	–	400시간	300시간	300시간	1,000시간
전력소비량	500 kWh	–	200 kWh	300 kWh	1,000 kWh

① P1: ₩98,000, P2: ₩122,000
② P1: ₩100,000, P2: ₩120,000
③ P1: ₩120,000, P2: ₩100,000
④ P1: ₩122,000, P2: ₩98,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끼리 주고받는 용역**까지 원가에 반영한다. 이를 반영한 X와 Y의 총원가는 각각 200,000원이며, 제조부문의 용역 사용비율을 적용하면 P1에는 100,000원, P2에는 120,000원이 배부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상호배부법에서는 각 보조부문의 자체 발생원가에 다른 보조부문에서 배부받는 원가를 더해 총원가를 구한다. X와 Y의 총원가를 각각 x, y라 하고, 금액 단위는 원으로 둔다.

1. 용역제공 비율: X의 기계시간 합계는 1,000시간이다. Y가 400시간, P1과 P2가 각각 300시간을 사용하므로 X의 원가는 Y에 40%, P1과 P2에 각각 30%씩 배부된다. Y의 전력공급량 합계는 1,000 kWh이며, X가 500 kWh, P1이 200 kWh, P2가 300 kWh를 사용하므로 Y의 원가는 각각 50%, 20%, 30%씩 배부된다. 이때 분모에는 **다른 보조부문에 제공한 용역도 포함**한다.

2. 보조부문 총원가: X는 자체 원가 100,000원에 Y 총원가의 50%를 더하고, Y는 자체 원가 120,000원에 X 총원가의 40%를 더한다. 따라서 두 총원가는 다음 연립방정식으로 구한다.
$x = 100{,}000 + \frac{1}{2}y$
$y = 120{,}000 + \frac{2}{5}x$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x = 160{,}000 + \frac{1}{5}x$이므로 $\frac{4}{5}x = 160{,}000$이다. 이에 따라 $x = 200{,}000$, $y = 200{,}000$이다. 이 금액은 **상호 용역의 원가를 포함한 배부 대상 총원가**이다.

3. P1 배부액: X 총원가의 30%와 Y 총원가의 20%를 합한다.
$200{,}000 \cdot \frac{300}{1{,}000} = 60{,}000$원
$200{,}000 \cdot \frac{200}{1{,}000} = 40{,}000$원
따라서 P1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는 60,000 + 40,000 = 100,000원이다.

4. P2 배부액: X와 Y 총원가의 30%씩을 합한다.
$200{,}000 \cdot \frac{300}{1{,}000} = 60{,}000$원
X와 Y에서 각각 60,000원씩 배부받으므로 P2의 보조부문원가는 60,000 + 60,000 = 120,000원이다.

P1 100,000원과 P2 120,000원의 조합은 ②와 일치한다. 두 배부액의 합계 220,000원은 보조부문 자체 발생원가 합계인 100,000 + 120,000 = 220,000원과 같다. 제조부문의 기존 원가 100,000원과 200,000원은 **추가로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에 더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0.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측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가치와 달리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현행가치 측정기준은 공정가치, 자산의 사용가치 및 부채의 이행가치, 현행원가를 포함한다.

③ 공정가치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예측가치를 가질 수 있다.

④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기업이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측정하므로, 자산의 최종 처분이나 부채 이행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자산 취득이나 부채 인수 때 이미 발생한 거래원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역사적 원가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 당시의 가격에 기초하는 측정기준이다. 따라서 현행가치와 달리 일반적인 가격 상승·하락을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다시 측정하지 않는다. 다만 **자산의 손상이나 부채가 손실부담 상태가 되는 데 따른 가치 변동**은 반영한다. 이는 자산의 회수가능성이 낮아지거나 부채 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증가한 경우를 장부금액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② O: 현행가치는 **측정일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도록 갱신된 정보를 사용하는 측정기준이다. 여기에는 공정가치, 자산의 사용가치와 부채의 이행가치, 현행원가가 포함된다.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자산 매도·부채 이전 가격이고,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기업이 예상하는 미래 현금흐름 등의 현재가치이다.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을 취득하는 원가 또는 동등한 부채를 부담하면서 받는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O: 공정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시기·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현재 기대**를 반영한다. 따라서 공정가치로 측정한 자산과 부채의 정보는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므로 예측가치를 가질 수 있다. 예측가치는 정보 자체가 미래 예측치라는 뜻이 아니라, 이용자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다.

④ X: 사용가치는 자산의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 등의 현재가치이고, 이행가치는 부채를 이행하기 위해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등 경제적 자원의 현재가치이다. 두 측정기준은 미래 현금흐름에 기초하므로 **최종 처분이나 이행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를 포함한다**. 자산 처분 거래원가는 처분으로 얻는 순현금유입을 줄이고, 부채 이행 거래원가는 필요한 현금유출을 늘린다. 반면 자산 취득이나 부채 인수 때 이미 발생한 거래원가는 미래 현금흐름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NoteBase